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39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2차] 서울 확진자 2차 동선 공개... 접촉자 등 확인
- 원희룡 지사 “모든 도민 방역 주체·방역당국 돼야”
- 제주120만덕콜센터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 제주도, 준등기 우편제도 적극 장려... 비대면 배달 가능
- “고마운 제주에 보답 ” 중국 다렌시, 마스크·방호복 등 지원

2020. 3. 11.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11.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11.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1명, 격리 중 3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489	4	1	3	0	1,485	61	1,424	30
일일 증감	+70	0	0	0	0	+70	-12	+82	-1
전국	222,395	7,755	288	7,407	60	214,640	18,540	196,100	X

□ 입도객 현황 ('20.3.10.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5,790명 (작년 같은 날 대비 △54.0%, 전일 대비 +2.7%)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5,790	15,637	153	5	2	146
	2019년	34,337	31,119	3,218	1,963	161	1,094
	증감률	△54.0%	△49.8%	△95.2%	△99.7%	△98.8%	△86.7%
누계 (2.23.~)	2020년	264,538	259,300	5,238	379	584	4,275
	2019년	599,953	534,045	65,908	36,918	4,020	24,968
	증감률	△55.9%	△51.4%	△92.1%	△99.0%	△85.5%	△82.9%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64명 (출발) 312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2명 (2.6. 이후 누계 : 128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10.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C이하)	문진상담(37.5°C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31	31	0	0	0
누계(2.3.~)	1,496	1,391	105	81	24*

* 이송대상자 24명 중 17명 단순발열로 귀가, 7명 검사(음성7, 검사 중0)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0.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3	3	0
누계(3.7.~)	39	37	2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11.(수)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후속자료: 있음

[2보] 서울 확진자 2차 동선 공개...접촉자 등 확인

- “4일 의심증상 발현 사실 아니...제주방문 당시 증상 없었다” 진술 -
- 제주 체류시 대부분 마스크 착용...방문 시설 폐쇄접촉자 33명 격리 조치 중 -

※제주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시 동작구보건소에서 통보한 내용과 A씨의 진술 내용은 다르며, A씨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 증상 발현일은 3월 4일이 아닌 확진 당시 10일까지 무증상

- 지난 7일 제주에 다녀간 후 서울시 동작구보건소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A씨(40대 여성)의 첫 증상 발현일은 3월 4일이 아니었으며, 10일 확진 판정일까지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밤 A씨와 직접 통화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 당초 서울시 동작구보건소가 A씨에 대해 3월 4일 의심증상이 발현됐다는 기록과 관련, A씨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A씨는 지난 8일 구로구부터 자신의 직장인 구로구 콜센터 동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검체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통보받고, 3월 9일 무증상인 상태에서 동작구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 A씨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A씨는 제주 방문과 관련해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6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퇴사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A씨는 7일 휴식 차 제주를 혼자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 그리고 A씨는 6일 퇴사한 당일 구로구콜센터 첫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도는 A씨 대한 정보와 A씨와의 직접 통화내용 그리고 교통카드 내역 및 CCTV조사를 통해 확인한 2차 동선과 접촉자 관련 사항 등을 공개했다. <표 참조>
 - 제주도는 지난 10일 밤부터 오늘(11일) 현재까지 동선 5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으며, 제주행 항공기 승무원 및 승객, 식당, 펜션, 편의점, 버스기사 등 33명의 접촉자를 확인하고 격리 조치하고 있다.
 - 제주도는 현재 버스 내 접촉자를 확인 조사 중에 있으며, 서울행 비행기 승무원 및 승객 명단은 동작구보건소에 통보했다.
 -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CCTV 등의 분석을 통해 A씨가 동선 이동 중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항 등 실내에서 반팔차림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 앞으로도 제주도는 A씨와의 접촉자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대로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제주도는 A씨의 2차 동선을 재난안전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의심 증세가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붙임

제주여행 후 확진자(현재 서울 체류) 진술 및 결제내역에 따른 2차 동선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조치사항
3.7	08:45~10:00	김포→제주 아시아나항공(OZ8915) 탑승	승무원2 , 승객23	
	10:13~10:24	제주공항→제주버스터미널 버스(466번)로 이동		
	10:25~11:00	버스터미널 근처 제주기사정식뷔페에서 식사	직원 1, 손님 2	방역소독 완료
	11:00~11:24	제주터미널 외부 정류장 대기		
	11:24~13:03	제주버스터미널→광치기해변 버스(201번)로 이동		
	13:03~13:32	광치기해변 체류		
	13:32~14:11	광치기해변→동성동(김녕) 버스(201번)로 이동		
	14:11~14:25	동성동 부근 유채꽃밭 관광		
	14:25~14:39	동성동(김녕)→함덕환승정류장(함덕해수욕장) 버스(201번)로 이동	운전기사 1명	함덕환승정류장 방역소독 완료
	14:39~14:50	함덕 해수욕장		
	14:50~15:00	유드림마트 함덕점 방문		방역소독 완료
	15:00~18:30	함덕 포엠하우스(펜션) 시설 이용	직원 1	방역소독 완료
	18:33~18:45	GS25 함덕골든튠립점 방문	직원 1, 손님 1	방역소독 완료
	19:07~19:26	함덕환승정류장(함덕해수욕장)→화북남문 버스(311번)로 이동		
	19:33~20:04	화북남문→제주공항 버스(331번)로 이동	운전기사 1명	
21:10	제주→김포 아시아나항공(OZ8996) 탑승			

※ 환자 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 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이동 경로 확인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 경로 및 접촉자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대구·경북 여행 도민 3명 신천지 유증상자 9명 모두 음성

- 대구·경북지역 방문 도민 37명·체류객 2명 등 총 39명 검사 진행 -
- 2월 27일~3월 10일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 75명 검사 결과 모두 음성 -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대구·경북지역을 여행한 도민 3명과 도내 신천지 신도 9명에 대한 추가적인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 대구를 다녀온 도민 3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면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 이후 검사 인원은 총 39명(도민 37, 대구·경북 거주 2)으로 증가했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어제(10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2명이 입도하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28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97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31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10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64명, 출발 탑승객은 312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300명 내외로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11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없는 상태다.
- 한편, 제주도는 10일 실시한 14차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천지

관련자 9명의 증상을 확인하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 현재까지 도내 신천지 관련자(신천지 신도 643명 · 교육생 101명)를 대상으로 전화 문진을 진행한 바 있다.
- 같은 기간 동안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는 75명으로 나타났고,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 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상

(검사당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무증상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2월21일 이전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자
(*2월 21일 기준은 우리도 첫번째 대구 관련 확진자 발생)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로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자 중
1주일 이상 체류자(체류기간 증명확인 항공권, 영수증 등 확인 전제)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공정지원단 공항공정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 064) 710-8820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코로나19 대응 제주국제공항 방역현황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10. 기준, 잠정치)

	3/1~2	3/3	3/4	3/5	3/6	3/7	3/8	3/9	3/10
제주 출발	537	297	262	311	321	319	374	355	312
제주 도착	599	358	358	357	357	304	219	295	364

※ 출·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0. 기준)

	누계(3/7~)	3/7	3/8	3/9	3/10
계	39	17	4	15	3
도민	37	15	4	15	3
제주 체류객	2	2	0	0	0

□ 대구·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10. 기준, 잠정치)

계	자율격리 해제 (2/6~2/24)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2/25~3/10)					
			2/25-3/5	3/6	3/7	3/8	3/9	3/10
128	97*	31**	20	0	2	2	5*	2

* 2/18 이전 입도 학생 3명, 3/9 3명 추가 확인

** 대학별 학생관리: 31명(제주대(격리기숙사13, 자가 등 13), 관광대(자가2), 한라대(대학 자체숙소 2, 자가 1))

□ 공·항만 발열감지 현황 ('20.3.10. 기준)

	3/2	3/3	3/4	3/5	3/6	3/7	3/8	3/9	3/10
열감지자	29	45	4	40	13	23	25	44	31*
누계(2/3~)	1,271	1,316	1,320	1,360	1,373	1,396	1,421	1,465	1,496

원희룡 지사 “모든 도민 방역 주체·방역당국 되어야”

- 1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호소문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당부 -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자발적 실천과 참여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 고 강조했다.
-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인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한데 이어 도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이날 호소문을 발표했다.
 - 원희룡 지사는 호소문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 며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 이어 “도민의 일상 속 방역인 ‘사회적 거리두기’ 의 실천이 뒤따라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며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원희룡 지사는 “ ‘바이러스와의 전쟁’ 에는 경계가 없다” 면서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주체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단체가 방역당국이어야 한다” 고 말했다.
- 이날 호소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민 3대 실천 수칙도 담겼다.
 - 3대 실천 수칙은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접촉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배려 문화 조성 등
이다.

□ 한편, 제주도는 범도민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
인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 바도 있다.

○ 도는 캠페인을 통해 각종 모임·만남 자제, 집단 활동 자제,
모바일 교육 및 영상회의 대체,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
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 관련 문의 : 총무과 임흥철 총무팀장 064) 710-644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고윤성 기획팀장 064) 710-2231

[붙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호소문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호소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실천과 참여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내 확진자 4명 모두
특별관리지역에서 감염돼 입도했고,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에 대응하는 방역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 속 방역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뒤따라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는 전후방의 경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주체이고,
모든 지역과 기관·단체가 방역당국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도민 3대 실천 수칙

-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며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가족, 이웃,
제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제주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120만덕콜센터 코로나 감염 차단 고강도 방역

- 건물 방역 주 1→2회, 발열체크 하루 2→3회 등 지침 대폭 강화 -
- 도내 민간 콜센터 운영 업체에 대해서도 감염예방조치 요청할 방침 -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120만덕콜센터를 비롯한 밀집근무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120만덕콜센터는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인 지난 1월 28일부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근무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발열체크를 진행했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소독기준을 마련해 주 1회 콜센터 건물을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에 주력해 왔다.

*** 제주 120만덕콜센터 운영 현황(2020년 3월 기준)**

- 근무인력 : 35명, 운영시간 : 365일, 07~22시, 1일 평균 상담문의 : 1,373건

□ 제주도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유사한 집단감염 사례가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대응 지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우선, 콜센터 건물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 소독하고, 발열체크도 출근과 점심 후, 퇴근 시 3회로 확대 실시한다.

○ 상담석 및 업무용 비품 등은 수시 소독하는 등 개인 및 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퇴근 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개인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 원희룡 지사는 “제주120만덕콜센터와 유사한 밀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집단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KT 제주항공, 제주은행 등 도내 민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아울러 재난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집근무시설 내 위생수칙 준수 등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관련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064) 710-6830

비대면 배달 제주도, 준등기 우편제도 이용 적극 장려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준등기 우편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취인이 우편물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등기우편 제도의 경우 집배원과 수취인이 직접 대면함으로써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준등기 우편 서비스는 등기우편과 유사한 서비스로 접수된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등기우편과 달리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지만, 수취함에 넣은 뒤 결과를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 중 하나인 비대면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제주도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부터 준등기 우편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게 됐다”며 “서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준등기 우편 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전 부서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송종식 총무과장 064) 710-6440

“고마운 제주에 보답” 중국 다렌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 평춘타이 중국총영사, 유학생 편의제공 감사...춘추항공, 마스크 1,000개 기부 -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우호도시인 다렌시가 제주에 구호물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렌시는 “제주가 보내준 마스크 지원에 감사드린다” 며 마스크와 의료용 보호복, 방호복, 라텍스 장갑 등을 이달 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 지원품목

- N95마스크 5,000개와 일반의료용 마스크 10,000개, 방호복1,500벌, 라텍스 장갑 10,000개

□ 또한 평춘타이 주제주중국총영사는 중국 유학생의 입도 편의와 자발적인 관리 등에 대한 제주도와 도내 대학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 평춘타이 총영사는 지난 2월 25일 원희룡 지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국 자매우호도시에 구호물품 지원 등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데 대해 제주에 있는 모든 중국인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 고 고마움을 전했다.

○ 평춘타이 총영사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하는 각 대학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중국 국적기 춘추항공 한국지사는 지난 10일 마스크 1,000개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 전달했다.

○ 박홍군 춘추항공 한국지사장은 “제주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께 조그마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며 취

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 중국 다롄시를 비롯해 하이난성, 상하이시 등 자매·우호도시 4곳에 1억 원 상당의 마스크 10만 개를 지원했다.

※ 관련 문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채종협 과장 064)710-6250

-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Palm to palm)
- 2 손등 (Back of hand to palm)
- 3 손가락 사이 (Between fingers)
- 4 두 손 모아 (Interlocking fingers)
- 5 엄지 손가락 (Thumb rotation)
- 6 손톱 밑 (Under nails)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Use tissues or handkerchiefs)
- 2 옷 소매로 가리기 (Cover with elbow)
-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Wash hands with soap after coughing)

발행일 2019.11.5.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사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사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사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